

국내 아웃도어웨어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김인혜* · 하지수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요약

스포츠는 그동안 패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면서 스포츠웨어라는 복종이 발전해왔다. 최근 대중소비와 여가문화 확산에 따른 여가의 증가로 여가활동과 패션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국내 아웃도어웨어도 컬러나 실루엣 등 패션을 강조한 의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국내 아웃도어웨어의 역사를 고찰하고, 최근 두드러진 아웃도어웨어의 디자인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입체적 패턴의 기술의 발달과 기능적 활동성을 위해 몸에 딱 맞는 피팅감을 주는 인체곡선을 슬림한 실루엣, 몸의 땀과 열기를 효율적으로 배출하기 위한 여밈과 편리한 수납을 위해 웰딩처리된 다양한 지퍼, 스트링, 밴드 등의 기능적 디테일, 화이트와 블랙을 바탕으로 자연의 색과 비비드한 색채 대조와 화려한 색채가 많이 보였고, 스마트한 기능성은 소재부분에서 초경량 소재에 세련미를 더하면서 도심에서도 입을 수 있는 다양한 아이템을 선보였다. 아웃도어웨어의 보편화에 따라 캐주얼웨어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아웃도어웨어와 캐주얼웨어와의 혼합된 스타일이 전반적으로 많이 나타났는데, 캐주얼 아이템의 디자인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이질적인 소재의 혼용과 더불어 더욱 슬림해지고 다양한 패턴류가 트렌드에 맞춰 무채색계열과 베이지, 카키색상을 사용하여 도시적 모던함을 느끼게 하였다.

주제어: 아웃도어웨어, 등산복, 디자인 특성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주 5일제 확산 이후 일상생활에서의 새로운 변화는 대중 소비의 확산과 더불어 등장한 여가문화의 확산이다. 여가를 중시하고 가치 있게 활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여가활동이 늘어나고 관련 소비지출도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아웃도어 시장과 같은 관련 비즈니스가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고부가 산업으로 새로운 도약을 시도하고 있다.

스포츠 활동 중 우리나라 등산 인구는 약 1,800만 명으로 전체 성인의 53%가 등산을 즐길 정도로 대중적이며, 등산을 넘어선 아웃도어 라이프스타일 시대를 열어가면서 산뿐만 아니라 걷기, 자전거타기 열풍으로 근린공원이거나 타운웨어로 착용 가능한 캐주얼 라인을 추가하여 트레킹, 자전거, 캠핑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패션성을 겸비한 아웃도어웨어로 변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변에서 데일리웨어로 아웃도어웨어를 착용한 모습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아웃도어웨어는 등산이나 운동할 때만 입는 옷으로 인식되던 시대에서 스포티 쉬크(sporty chic)의 이미지가 더해져서 새로운 개념인 아우트로(outro)로 발전하고 있다. 아우트로는 아웃도어(outdoor)와 메트로(metro)를 합성한 용어으로써 등산복처럼 고기능성 레저용으로 제작된 정통 아웃도어웨어에 도심에서 어울리는 세련된 멋을 가미한 시티 웨어(city wear)를 믹스한 개념으로 정의된다.¹⁾ 여가의 증가로 여가 활동과 패션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아웃도어웨어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투습방수, 항균항취, 발광, 자외선 차단 등 다양한 복합기능성을 겸비한 소재들이 사용되어 기능성을 강조함은 물론 트렌드를 반영한 유행성은 슬림하고 가벼운 디자인으로 다양화,

고급화되어 패션에 중점을 둔 디자인이 많다. 이는 현재 아웃도어웨어 시장의 키워드는 ‘친환경’, ‘가벼움을 들 수 있다’, ‘신경써라, 산에도 시선이 있다’ 등의 광고문구²⁾에서도 보여주듯이 아웃도어웨어 디자인은 기존에 어둡고 투박한 남성적 스타일에서 등산인구의 증가로 여성 고객층이 부상하면서 밝고 다양한 초경량의 제품들이 선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아웃도어웨어의 보편화, 다양화, 개성화에 따라 기능성 못지않게 패션의 영향력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진행된 많은 연구들은 주로 미국에서 발달된 스포츠웨어를 중심으로 스포츠 패션의 기능적 소재와 디테일들이 하이패션에 반영된 스포티브 룩에 관한 연구(김미영, 2003³⁾; 정재희, 1992⁴⁾; 하승연, 2006⁵⁾)와 스포츠 및 스포티브 룩 유형에 관한 연구(박주희, 2004⁶⁾; 하지수, 2002⁷⁾)등 스포티브즘에 대한 연구는 다수 있었으나, 국내 아웃도어웨어가 일상복으로까지 확대되기까지 국내 아웃도어웨어의 역사에 대한 자료 및 아웃도어웨어 자체의 디자인 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아웃도어웨어의 역사적 고찰을 통해 아웃도어웨어의 발전과정을 살펴본 후, 최근 평상시에도 입을 수 있는 기능성과 패션성을 겸비한 아웃도어웨어의 디자인 특성에 대해 살펴봄으로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소비자들의 다양한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에 부합한 아웃도어웨어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최근 국내 아웃도어웨어의 대중화에 따른 디자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레저스포츠로서 아웃도어웨어의 사회·문화적 등장배경 및 국내 아웃도어웨어의 현황 등을 문헌연구를 통해 고찰하였고,

아웃도어웨어 중 2010년 백화점 아웃도어웨어 전체 매출액 1조 3,000억원 중 82.7%의 매출을 차지하는 노스페이스(North Face), 코오롱스포츠(Kolon Sports), 케이투(K2), 컬럼비아(Columbia), 라푸마(Lafuma) 5개 브랜드를 선정⁸⁾하여 최근 등산복의 디자인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0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발간된 각종 섬유패션 전문지, 신문, 잡지, 아웃도어 브랜드 홈페이지, 브랜드의 광고사진을 취합한 광고정보센터 등을 참조하여 중복되는 사진을 제외하고 총 104장을 수집하였고, 위에 언급한 5개 브랜드의 등산복 디자인 특성을 디자인과 디테일, 색상, 소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II. 국내 아웃도어웨어의 역사

1. 아웃도어웨어의 개념

19세기 이래 지금까지 부의 확장, 여가시간의 증대, 웰빙추구 등으로 스포츠는 패션에 가장 중대한 영향을 미친 요인 중의 하나로 평가된다.⁹⁾ 스포츠웨어는 스포츠 활동과 관련한 필요에 의해 생겨난 의복이 스포츠웨어라 할 수 있으며¹⁰⁾, 1890년대에 테니스, 골프, 자전거 타기, 수영, 스케이트, 요트, 사냥 등을 할 때 착용하는 의복을 가리키는 말이었다가 1920~1930년대에는 스웨터, 스커트, 블라우스, 팬츠, 반바지 등 스포츠를 관람할 때 입는 캐주얼웨어를 가리키는 말로 대중적으로 사용되었다.¹¹⁾ 20세기 후반 다양한 스포츠 참여활동이 대중화되면서 스포츠 활동을 위한 의복을 액티브 스포츠웨어(active sportswear)로 구분되기 시작하였고, 현재 스포츠웨어는 운동경기, 개인적 운동과 취미로 하는 운동 등에 착용하는 피복류의 총칭으로 경기를 위한 운동복과 운동 전후에 입는 의복, 스포티한 캐주얼 의류를 모두 의미하며¹²⁾, 넓은 의미로 낚시나 등산, 그 외의 레저를 위한 의

복까지 포함하나 오늘날에는 따로 분류하여 아웃도어웨어나 레저웨어로 사용하기도 한다.¹³⁾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것과 같은 형태의 아웃도어웨어가 정립된 것은 19세기 영국에서 시작되었으며 당시 영국 신사들에게 있어서 아웃도어 스포츠란 단순한 운동의 차원을 넘어 자기 생활의 질서를 유지하는 정신적 만족의 수단으로 받아들여졌다. 영국에서 아웃도어 스포츠란 생활 그 자체였기 때문에 옷차림도 아웃도어용으로 특별히 새로운 것을 고안했다기보다는 평상시 캐주얼웨어에 한두 가지 기능이나 몇 가지 장비를 보태어졌다.¹⁴⁾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대중패션 뿐만 아니라 하이패션에서도 스포츠웨어의 조형적 요소나 이미지를 차용하여 스포츠웨어와 하이패션의 퓨전현상이 일어난 후, 최근 들어 스포츠는 점점 더 다양화, 대중화, 민주화되면서 스포츠웨어는 점차 캐주얼하게 변화하였고 정치, 경제, 예술, 영화, 광고, 패션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특정 층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여가활동이 다양한 계층으로 확산된 결과이다.

아웃도어(outdoor)란 집밖, 즉 야외를 의미하는 것으로 ‘아웃도어웨어(outdoorwear)’는 야외에서 즐기는 스포츠나 레저활동을 위해 착용되는 의복으로 등산(hiking), 암벽등반(climbing), 트레일 러닝(trail running), 낚시(fishing), 사이클링(cycling), 스노우보딩(snowboarding), 스키(skiing), 캠핑(camping) 및 다목적 스포츠 의류를 통칭한다.¹⁵⁾ 이는 구기종목(농구, 축구, 배구 등)이나 실내 스포츠(에어리크, 수영 등)와 구분되며 활동에 맞는 의복의 기능성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의류 복종과는 달리 기능성 소재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야외에서 즐기는 여가 활동 중 등산할 때 입는 복장인 등산복은 산을 오르는 행위 자체를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서 얻는 몸과 마음의 즐거움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는다. 레저스포츠로서의 등산은 근대에 들어와서 활발해졌는데, 산을 포함한

대자연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의 의미로는 산책(rambling), 방랑(scrambling), 등산(mountaineering), 등반(climbing) 등 크게 4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 중 산책은 해변이나 평원, 숲속, 오솔길 등을 거닐거나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 또는 구릉지를 오르내리는 정도의 행위를 말하고, 방랑은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마음 내키는 대로 자유롭게 거닌다는 의미이며 백패킹(backpacking)과 같은 뜻이며, 등산은 높이를 지향하고 정상을 목표로 하는 행위와 기어오른다는 것을 뜻하며, 등반은 손과 발을 이용하여 암벽이나 설벽, 빙벽 등을 오르는 것을 말한다.¹⁶⁾

오늘날의 아웃도어웨어의 개념은 위에 언급한 4가지 행위를 포괄할 뿐만 아니라 여가의 증가로 여가활동과 패션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타운웨어로 작용 가능한 캐주얼 라인을 추가하여 등산복뿐만 아니라 트레킹, 자전거, 캠핑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패션성을 겸비한 아웃도어 웨어로 변모하고 있다. 예전 등산복이라고 불렀던 의복이 2002년경부터 등산복을 평상복처럼 입는 트렌드가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등산복으로 대표되는 ‘아웃도어’, 또는 ‘아웃도어웨어’라고 부르는 현상이 나타났다.¹⁷⁾ 야외에서 즐기는 스포츠웨어의 특성상 전문성과 기능성이 중요하며 신체 보호, 보온, 방수, 방풍의 기능이 요구되므로 산행시 행동이 편리하도록 몸에 잘 맞고 쾌적한 몸의 상태를 유지시켜줘야 한다. 일반적으로 아웃도어 등산의류 및 용품은 등산의류, 등산용품, 야영장비로 구분되는데, 등산의류에는 재킷, 파카, 티셔츠, 셔츠, 조끼, 바지, 반바지, 기능성 내의 등이 있고, 등산용품에는 등산화, 스패츠, 양말, 등산배낭, 배낭커버, 장갑, 모자, 스틱, 기타용품 등이 있으며 야영장비로는 텐트, 버너, 코펠, 침낭, 기타 야영장비 등이 있다.¹⁸⁾ 등산복의 구성품목을 크게 의류와 액세서리로 구분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의류는 내의와 외의를 중심으로 내

의에는 브리프, 브라가 있으며 외의로는 티셔츠, 조끼, 재킷, 파카, 바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외에 등산할 때 발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등산화와 액세서리인 모자, 바라크라바(balaklava)¹⁹⁾, 장갑, 배낭, 양말 등의 품목으로 구분된다.

등산 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 단계별로 인체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착장방법을 레이어링 시스템(layering system)이라 하며 1st layer, 2nd layer, 3rd layer로 구분하며 이 중 3rd layer가 가장 보편화된 방식이다.²⁰⁾ 1st layer는 맨살 위에 입는 속옷으로 흡수속건을 통한 쾌적성을 부여하며 앞서 언급한 내의에 해당하고 2nd layer는 티셔츠, 베스트, 바지로 티셔츠는 땀으로 젖기 쉽거나 휴식시 금세 추워지기 때문에 면 보다는 습기를 덜 흡수하는 원단인 합성섬유가 바람직하다. 그 외 폴라플리스는 단열성 겸인 옷으로 보온성과 활동성을 부여하며 등산용 바지는 주 소재로 나일론을 사용하거나 신축성을 위해 스판덱스를 혼용한다. 3rd layer는 아우터(outer)로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몸을 방어하는 방풍, 방수, 투습성을 부여한다.

2. 아웃도어웨어의 등장배경과 변화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노동시간의 단축, 여가시간의 증대 등 생활이 많은 영역에서 편리함을 꾀할 수 있게 되었으나 한편 스트레스, 인간소외, 운동부족 등 여러 가지 사회병리현상과 직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오늘날의 사회적·문화적 배경 가운데서 스포츠는 과거와 다른 의미로 이해되면서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

스포츠는 수단 그 자체가 목적인 활동으로 인간표현의 한 형태로 역사적으로는 신체적인 놀이에서 비롯하였으며, 문화적으로 인정받는 여가활동으로 그 개념이 정리된다.²¹⁾ 노동 중심적 가치관에서 과학과 경제발전으로 인해 노동이나 의무로부터 독립된 진정한 의미의 여가시간이 증가했

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생활수준이 향상됨으로서 이전에 소수의 특권층만이 누리던 여가시간의 활동이 모든 계층으로 확산되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960년대 이전까지는 소수특권층의 여가를 위한 정책의 수준에 머물렀으나, 1960~1970년대에는 대중여가의 차원에서 여가의 의미를 인식하게 되었고, 1980년대에는 그 동안 여가참여에 소외되어왔던 저소득층, 노령자층 등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여가복지적 정책이 강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²²⁾ 1980년대 이후 국내 생활전반의 질적 향상으로 여가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1990년대, 2000년대에 들어 가치창조적 여가활동을 중시하는 웰빙(well-being)문화 확산과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라 레저 스포츠 중 등산은 삶의 질을 높이는 레저 활동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2002년 월드컵이 끝난 후 국내 스포츠산업의 팽창과 소득수준의 향상, 여가시간의 증가 등으로 스포츠 브랜드가 패션 트렌드로 떠오르기 시작했고, 고기능성 위주였던 아웃도어웨어 시장은 아웃도어 라이프스타일 시대를 열어가며 평상시에도 입을 수 있는 의류로까지 확대되어 기능성과 패션성을 겸비한 아우트로 패션으로 발전하고 있다.

아웃도어의 초기시장은 전문성을 띤 등산관련 제품을 구입하는 전문 소비자층이 중심이었으나 현재는 건강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웰빙 라이프스타일의 확산으로 일반 소비자에게로 확대되고 있다.²³⁾ 특히 주5일 근무제의 확산으로 여가시간과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연령과 용도에 제한받지 않고 남녀노소 누구나 입을 수 있는 스타일로 변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등산을 중심으로 최근에는 자전거나 걷기 등에도 등산복을 착용할 뿐만 아니라 캠핑이나 여행할 때도 등산복을 착용한다. 서울의 역사길 걷기대회나 둘레길 등 문화행사는 등산을 더욱 더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스포츠 활동을 위한 의복인 액티브 스포츠

웨어와 스포츠캐주얼룩인 스포티브룩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대중패션, 고급패션의 구분이 모호해진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이 보이면서 스타일의 다양화를 탄생시켰다.

3. 국내 아웃도어웨어의 역사

우리나라 아웃도어웨어의 역사는 등산복에서 시작된다. 이는 국토의 70%가 산인 자연 환경적 요인을 바탕으로 스포츠를 목적으로 등산복과 용품, 야영 장비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1960~1970년대이다. 국내의 등반은 1920년대 중반에 시작되어 1931년 조선 산악회를 창립하면서 서구적 근대 등산의 개념이 전개되었고, 1945년 해방 후, 1960년대 초에는 한국산악회를 중심으로 산맥답사 및 국토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 조사와 개척등반이 활성화되었다.²⁴⁾ <그림 1>²⁵⁾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정부수립 전인 1947년 소백산맥 학술조사대 참가대원들은 일반 사복을 입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당시 아웃도어 스포츠라는 개념은 소수의 전유물이었고 군용청자(청색자일), A형 텐트, 버너, 침낭 등 등산장비는 미군 야전용 군수품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등산복도 군복을 염색, 개조한 것으로 지금처럼 세련된 디자인과 색상도 하지 못했다.²⁶⁾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 주로 신던 것이라야 군대에서 흘러나온 군화가 대부분이었고, 군용 스키파카에 군용 스키고글 등을 쓰고 있었다<그림 2>. 이와 같은 현상은 1980년대 초반까지 지속되었는데 등산용품도 사치품으로 인정해 높은 관세를 물렸던 시기였을 뿐만 아니라, 군인이 입어야 할 전투복이 일반인의 작업복이나 등산복이 되고 있는 등 각종 군수물자가 일반 시중에 거래되고 있는 폐단을 막기 위한 군수품합동단속 기사²⁷⁾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서구에서의 등산의 역사를 살펴보면 르네상스 시대로 접어들면서 산의 존재를 의식하게 되었고,

1358년 아스티(Asti)의 로탈리오(Rotarius)가 종교적 동기에서 로쉬멜론(Rocciamelone, 3,537m)에 오른 것이 알프스(Alps) 히말라야산(Himalayas) 지대에서의 최초의 등산기록으로 남아있다.²⁸⁾ 18세기 들어서야 알프스의 산들을 오르기 시작하였고 19세기 융프라우(Jungfrau, 4,158m), 핀스터라르호른(Finsterarhorn, 4,275m) 정복되고, 세계 최초로 등산단체가 영국 런던에서 창립되었다. 영국은 스포츠에 관심을 가진 스포츠 신봉자, 이론가, 실천가들이 중심지가 되면서 경마, 골프, 크리켓, 등산 등 18세기와 19세기 신사계급 중심의 스포츠클럽은 상류층에 국한되어 있었다.²⁹⁾ 미국의 경우 19세기에 들어 스포츠 활동을 중시한 기독교주의 사조 유입으로 스포츠 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하였으며, 초기 자본주의 사회의 성립에 친화성을 지녔던 근검·절약의 노동윤리가 점차 퇴색하고 소비가 미덕이 되면서 쾌락의 윤리가 소비생활과 여가생활에 자리 잡게 되었고³⁰⁾, 20세기로 접어들면서 기능성을 중시하는 본격적인 스포츠웨어가 개발되기 시작했다. 1950년에는 프랑스원정대가 안나푸르나(Annapurna)의 주봉(the highest peak, 8078m)을 처음으로 등정하였는데, 가볍고 강한 나일론 제품의 텐트나 로프 등을 처음으로 사용하였다.³¹⁾



<그림 1> 1940년대 등산복 <그림 2> 1950년대 등산복
(출처: 『한국산악회오십년사』, (출처: 『한국산악회오십년사』, 1996, p.25) 1996, p.30)

1) 아웃도어웨어의 발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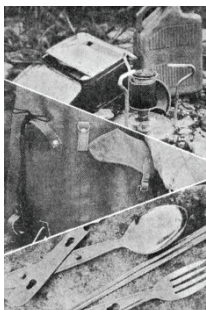
국내 등산복 브랜드의 탄생은 1966년 에델바이스(Edelweiss)로 등산양말 제조업체로 출발하여 가장 오래된 아웃도어 브랜드이다. 1970년대 들어서

면서 1972년 K2, 1973년 코오롱 스포츠가 면과 모 등 천연 소재로 된 강렬한 원색 등산복을 기성복으로 출시하면서 시작되었다. 마이카 시대 흐름과 더불어 세계의 트렌드를 무엇보다도 먼저 몰고 오는 의류의 변천상은 바로 우리생활의 풍성하게 장식하는 고급화와 통하게 되는데³²⁾, 이때부터 화학 섬유인 기능성 소재인 고어텍스(gore-tex)³³⁾와 다운(down)³⁴⁾으로 만든 의류가 선보이기 시작하였다. 1972년 레저웨어의 대중보급을 위해 최초로 코롱아케이드 주최로 스키, 스케이트, 등산을 중심으로 겨울철 스포츠웨어에 중점을 둔 레저웨어 패션쇼는 기능적인 면을 고려하여 가볍고 따뜻할 뿐만 아니라 방수효과를 위한 다양한 소재와 디자인을 선보였는데³⁵⁾, 강렬한 색감의 폴리에스터, 방수 나일론 비닐 등의 소재로 만들어진 남녀스포츠용 의상이 출품되었다. 이 시기의 등산 재킷은 나일론, 면, 테트론, 스카이론 제품으로 홑겹으로 된 것과 겹겹으로 된 것이 있었고, 등산바지는 무릎과 정강이 중간까지 길이에 통이 넓어 활동하기 편하게 만들어졌으며 코듀로이 및 홈스펀의 소재를 사용하였다. 등산화는 가죽제품과 합성섬유제품의 두 종류가 있었으며, 등산배낭은 초보자용이나 2~3일정도의 간단한 여행에 적합한 경키슬링형 (small kissing), 비닐이나 방수 면직으로 된 냅색형 (knapsack), 천막, 취사용, 등산화 등 많은 물건을 넣을 수 있는 키슬링형(kissling) 등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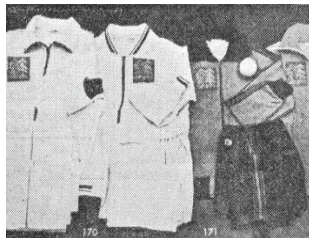
2) 아웃도어웨어의 성장기

1980년대에는 전국 산에서 취사 및 야영이 허용되면서 등산 붐이 일기 시작하면서 등산배낭과 등산용품은 비롯하여 기능성 소재인 고어텍스를 사용한 등산복이 대거 등장하였고, 국산품의 보급률이 아주 높아졌다<그림 3>. 88올림픽개최를 앞두고 스포츠 의류업이 새 유망산업으로 부각돼 대기업들이 앞 다투어 참여하였고 국내 스포츠붐이 조성됨에 따라 스포츠 의류생상품목이 다양해지고

수요도 고급화되었다<그림 4>.³⁶⁾ 이러한 배경에는 일본이 지난 1964년 동경올림픽을 계기로 스포츠 의류산업이 크게 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사 브랜드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결정적인 기여 등이다. 이 당시 TC와 면혼방제품의 파카, 나일론 소재의 방수방풍 기능의 재킷, 등산용 바지로는 니커버커(Nikjer-bocker)를 입고 보온을 위해선 위에 덧입는 오버트라우저(overtrouser)가 있는 정도였다. 대부분 청바지나 코듀로이 바지를 입고, 1990년대 이르러서야 등산 장비 점에서 본격적으로 바지가 판매되기 시작했다. 배낭은 부속이 튼튼하고 뭘 때 착용감이 편안하고 안락한 것을 권고한 것³⁷⁾은 이 시기에는 아직까지 기능성과 품질을 더 중요시한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이후 강렬한 원색계통이 주류였던 단조로운 등산복에서 벗어나 검정색 등산복이 나타나면서 아웃도어의 색다른 분위기를 내고 싶어 하는 등산객들을 중심으로 급속히 번져나갔다.³⁸⁾



<그림 3> 등산배낭과 등산용품
(출처: 동아일보, 1981. 9. 4, p.7)



<그림 4> 스포츠웨어의 고급화
(출처: 매일경제, 1982. 1. 22, p.7)

3) 아웃도어웨어의 확장기

주5일제 근무의 확대와 웰빙, 건강, 대중문화 및 소비의 확산에 따라 여가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등산복을 구매하던 주 소비자들의 연령층도 중, 장년층에서 점차 젊은 층, 여성층으로 변화되었다. 스포츠·레저 활동에 높은 관심을 보였으

며 향후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생긴다면 보다 많이 관광활동과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아웃도어에 대한 스포츠 활동 중 우리나라 등산 인구는 약 1,800만 여명으로 전체 성인의 53%가 등산을 즐기며 이러한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아웃도어 의류시장 규모 역시 매해 꾸준한 성장을 통해 2012년에는 5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³⁹⁾ LG패션의 라푸마는 2005년 국내진출 후 2011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델인 샤샤 피보바로바(Sasha Pivovarova)를 고용해 스타일리쉬해진 라푸마를 선보이며 여성을 핵심 고객으로 내세우고 있으며<그림 5>, 단순히 남성용에 비해 사이즈만 작게 만든 것이 아니라 슬림한 여성용 전문 제품을 다양하게 선보였다⁴⁰⁾. 신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끈 없이 다이얼로 풀고 죄는 보아시스템을 바지와 모자에 부착하거나 팔 부분에 형상 기억 테이프를 붙여 운동으로 체온이 올라갈 경우 옷의 팔 부분이 저절로 늘어나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바이오 셔츠<그림 6>, 자동으로 발에 맞게 신발 끈이 조절되는 장치인 핸드프리(hand free)시스템 등⁴¹⁾ 다양한 스마트한 제품들이 선보이고 있어 등산복의 기능성, 실용성과 더불어 패션성이 가미되면서 아웃도어웨어가 등산뿐만 아니라 주말 여행이나 도심에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으로 인식되는 등 범용성을 갖춘 의류로 발전하면서 다양한 기능성의 소재활용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스타일 변신이 두드러진다. 국내 아웃도



<그림 5> 라푸마 등산재킷 2011 F/W시즌
(출처: <http://adic.co.kr>)



<그림 6> 트렉스타 바이오티셔츠 2011 S/S시즌
(출처: <http://blog.naver.com>)

<표 1> 국내 아웃도어웨어의 역사⁴²⁾⁴³⁾

구분	년도	특징
미형성기	1950~1960년대	등산복과 용품, 야영 장비를 갖추기 시작함
발아기	1970년대	천연소재의 강렬한 원색 등산복 출시 기능성 소재인 고어텍스와 수출용 다운제품 선보임
	1980년대	아웃도어형 스포츠웨어 주류 전국 산의 야영 및 취사허용으로 등산 붐업 내셔널 브랜드 증가
성장기	1990년대	기능라인 확대/고기능 아웃도어룩(고어텍스 붐업) 아웃도어 의류 토탈화 및 성장기
	2000년대	웰빙수요 증가와 더불어 등산인구 증가 아웃도어 시장 매년 20% 증가 패션보다 기능성 중시
확장기	2010년대	아웃도어웨어 마켓 급격히 성장 패션과 기능이 믹싱 내셔널 브랜드 신규 런칭 다수

어웨어의 역사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III. 최근 아웃도어웨어의 디자인 특성

등산복과 캐주얼웨어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등산복을 평상복처럼 입고 다니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아우트로 패션은 아웃도어웨어의 기능성과 캐주얼웨어의 패션성을 접목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2000년대 후반 화사한 컬러가 유행과 화산재 섬유 등장 등 다양한 염색이 가능한 기능성소재의 등장으로 블랙 색상의 제품을 크게 줄이고 대신 핫핑크, 옐로우, 라임, 블루, 오렌지, 바이올렛 등 밝고 화려해진 색상의 제품을 크게 늘렸다.⁴⁴⁾ 아웃도어 라이프는 자유로움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문화코드로 바뀌고 있으며 신기술의 발달로 스마트한 제품들이 다양하고 선보이고 있는데, 기능성에 상위개념을 두고 기능성과 패션성의 크로스오버(crossover)인 아우트로의 확대와 나타나고 있다.⁴⁵⁾ 최근 아웃도어웨어에서 보이는 고기능성은 소재뿐만 아니라 기능의 역할과 활동성을

부여하기 위한 형태, 디테일 등을 도입하고 있으며⁴⁶⁾, 인체공학적 디자인을 중시하고 있다. 또한, 아웃도어웨어와 캐주얼웨어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T.P.O.에 구애받지 않는 현대인의 사회적 가치관과 복식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경계허물기의 모습을 보이며 현대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전반적으로 무경계의 시대인 이중성(dualism), 무경계(boundless), 크로스오버등으로 명하는 것⁴⁷⁾의 단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즉, 아웃도어웨어가 일상복으로 확장되고 보편화되면서 캐주얼 아이템과 절충되어 슬림한 디자인과 소재 및 색상에 변화를 준 상호결합성의 결과이다. 더불어 도심형 캐주얼웨어는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양식으로서 군중 속의 익명성을 지향하며 사회적 위기감을 타인과 순응하고자 하는 보편적 패션 트렌드로⁴⁸⁾, 등산 외에도 산악자전거, 캠핑 등을 할 때 착용할 수 있도록 다기능성과 패션트렌드에 맞춰 변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확장기로 명명한 2010년 이후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으로 과거 기능성을 중시했던 시기에 비해 기능성과 패션성이 혼합되어 도심형 캐주얼웨어로 확산되었다.

이에 아웃도어웨어의 최근 디자인경향을 실루

엣, 디테일, 색상, 소재의 조형적 요소를 중심으로 기능성과 패션성이 어떤 조형적 공통점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연구방법에서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선정된 5개 브랜드별 노스페이스(32), 코오롱스포츠(21), 케이투(19), 컬럼비아(18), 라푸마(14)의 총 104장을 수집하였다.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징은 기능성을 바탕으로 패션성이 가미된 요소는 실루엣과 색상에서 뚜렷이 확인할 수 있었는데 날씬해 보이는 슬림한 실루엣과 밝은 색상 위주의 트렌드 칼라가 많이 선보였고, 아웃도어웨어의 핵심요소인 기능성은 소재와 디테일에서 더욱더 부각되었다. 위와 같은 결과는 과거에는 풍성한 실루엣의 디자인이 주를 이루고 있었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슬림한 실루엣의 디자인이 등장하였고 최근에는 그 경향이 더욱 짙어짐을 알 수 있었고, 색상의 배색과 조화를 이루어 칼라디자인에 중점을 두어 심미성을 강조한 선행연구(박우미 외, 2002⁴⁹); 최진영, 2009⁵⁰)의 결과를 뒷받침해주었다.

1. 실루엣

최근 아웃도어웨어에서 보이는 실루엣은 옆선을 사선으로 절개하거나 인체의 곡선에 따라 자연스럽게 보이는 슬림한 형태로 나타났다. 절개선을 활용한 여성 티셔츠의 경우 날씬해 보이는 효과를 위해 디자인 요소로 프린세스 라인을 넣어 소매 안쪽, 등판 부위 등에 톤온톤으로 배색한 스타일로 절개부분 또한 배색 스티치를 넣어 포인트를 주는 디자인으로 되어있었다. <그림 7>은 라푸마의 광고사진 중의 하나로 ‘움직임이 스타일이 되다’라는 광고문구와 함께 블랙을 기본으로 강렬한 비비드한 색채와의 대조가 돋보이며 움직임이 많은 등산 활동에 최적화된 스타일로 인체의 곡선의 흐름을 강조한 역동적 라인의 절개선은 선과 색을 통해 날씬해 보이는 착시효과를 보여주었다. 등산

은 하체 움직임이 많은 만큼 경량감과 활동성을 고려하여 스트레치 원단을 사용하는데, 활동 시 바지 상부와 무릎부분에 여유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양옆에 고무 밴드를 넣어 폼을 조절하고 무릎 다트를 넣어 입체적으로 봉제한 슬림한 핏의 디자인과 몸에 딱 맞는 피팅감을 주는 인체곡선을 살린 디자인이 많아지는 추세이다<그림 8>. 앞에서 보면 다리가 길어보이게 하는 착시효과를 위해 유선형의 절개선을 넣어 배색을 하거나 엉덩이와 무릎, 밑단 부위에 케블러(kevlar)패치를 하여 마찰이 심한 부위에 마모성을 줄였고 기능성과 활동성을 높여 스포티한 스타일을 강조하였다. 레깅스 스타일의 스팬 바지는 허리부분을 스트링 처리로 안정적인 착용감을 부여하며, 밑단에 숨은 지퍼를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통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한 디자인과 인체공학적인 패턴 설계로 활동성을 극대화하였는데, 전 세계적으로 레깅스 패션이 유행하면서 아웃도어웨어에서도 스트리트 패션이 접목된 현상이라 할 수 있겠다. 패딩의 퀼팅기법도 과거 넓은 폭에서 좁은 형태, 사선퀼팅, 곡선퀼팅 등 다양해졌다. <그림 9>는 체크패턴의 셔츠와 청바지에 라푸마의 슬림핏 구스다운을 입은 착장으로 몸판의 앞과 뒤는 사선퀼팅으로 시각적으로 날씬해 보이는 효과를 보여주었고, 은은한 광택감이 흐르는 세련된 패턴 소재를 사용하여 다양한 스포츠에 적합한 기능성을 갖추면서도 도심에서 활용할 수 있는 패션을 연출하였다.

코오롱스포츠는 아웃도어웨어의 다양성을 표현하기 위해 2011년, 피에르 발망(Pierre Balmain), 칼라거펠드(Karl Lagerfeld), 클로에(Chloe)등과 컬레버레이션(collaboration)을 진행했던 장 콜로나(Jean Colonna)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영입하였고, 2012년 S/S시즌 트래블 라인을 통해 한 가지 아이템을 세 가지 아이템처럼 활용할 수 있는 ‘3-in-1’을 핵심으로 내세웠다. <그림 10>은 카키색상의 사과리 스타일의 디자인으로 트래블 라인의 캐주얼



<그림 7> 라푸마 등산티셔츠
2010년 9월
(출처: <http://adic.co.kr>)



<그림 8> 케이투 등산바지
2010년 5월
(출처: <http://adic.co.kr>)



<그림 9> 라푸마 패딩재킷
2011년 9월
(출처: <http://adic.co.kr>)



<그림 10> 코오롱스포츠
트래블 재킷 2012년 S/S시즌
(출처: <http://kolonsport.com>)

열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여성재킷은 일상생활에서 착용이 가능하며 빅 포켓이 내장되어 있어 용도에 따라 지퍼를 오픈하여 아웃포켓 디자인으로 변형·가능하게 만들었고, 허리벨트로 슬림한 핏을 보

여주는 방풍 재킷이다. <표 2>는 슬림한 실루엣 라인을 위해 사용되어진 절개, 닥트, 절개와 닥트를 모두 활용하여 몸에 잘 맞으면서도 활동성을 고려한 예를 디자인 요소별로 정리하였다.

<표 2> 슬림한 실루엣에 사용된 디자인 요소

디자인 요소	적용된 부분	아웃도어웨어			
절개	프린세스 라인 또는 변형 몸판 사선절개 요크 절개	<p><그림 11> 코오롱스포츠 2011년 5월 (출처: http://adic.co.kr)</p>	<p><그림 12> 노스페이스 2010년 3월 (출처: http://adic.co.kr)</p>	<p><그림 13> 케이투 2011년 9월 (출처: http://adic.co.kr)</p>	<p><그림 14> 케이투 2010년 5월 (출처: http://adic.co.kr)</p>
다트	가슴, 팔꿈치, 무릎	<p><그림 13> 케이투 2011년 10월 (출처: http://adic.co.kr)</p>	<p><그림 14> 노스페이스 2011년 4월 (출처: http://adic.co.kr)</p>	<p><그림 15> 컬럼비아 2011년 12월 (출처: http://adic.co.kr)</p>	<p><그림 16> 컬럼비아 2010년 4월 (출처: http://adic.co.kr)</p>
절개+다트	소매와 프린세스라인연결 허벅지와 무릎의 의도적 절개	<p><그림 15> 코오롱스포츠 2011년 9월 (출처: http://adic.co.kr)</p>	<p><그림 16> 케이투 2010년 9월 (출처: http://adic.co.kr)</p>	<p><그림 17> 노스페이스 2010년 7월 (출처: http://adic.co.kr)</p>	<p><그림 18> 컬럼비아 2010년 5월 (출처: http://adic.co.kr)</p>

2. 디테일

아웃도어웨어 패션은 단순히 고기능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체의 특성을 반영한 디자인과 끊임 없는 신기술의 개발로 스마트한 기능성을 첨가한 디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재킷은 산악용 방풍재킷과 방한용 다운재킷으로 크게 구분되어지며, 눈에 띄게 많이 보이는 형태는 지퍼로 연결된 후두 탈부착형으로 급변하는 산행날씨에 대응하기 위해 바람을 막아내는 발수, 방풍의 기능성과 더불어 등산 시 편안한 신체의 활동성을 고려하여 웰딩(welding: 무봉제)지퍼 부착이 많았다. 특히, 마찰이 많은 부위인 어깨, 엉덩이, 팔 등 마모되기 쉬운 부위에 패치 원단을 적용하기 위한 절개와 경량감과 활동성을 위해 등 부분, 옆구리, 겨드랑이 등 테크니컬한 절개선이 보였고 최적의 활동성을 위해 모션테크 신기술⁵⁾을 적용하여 인체의 미세한 동작까지 고려하였다<그림 19>. 등산복의 특성 상 몸의 땀과 열기를 효율적으로 배출하거나 여밈과 수납을 위한 부자재로 지퍼가 많이 활용되었는데 먼저 겨드랑이 통풍지퍼는 공기순환 활성화 기능을 위해서 부착되었고 보온성을 위한 이중 여밈을 한 경우 안쪽에는 지퍼로 바깥쪽에는 벨크로나 똑딱단추로 처리하였고, 이중 칼라와 목선구조는 옷을 겹쳐 입은 듯한 착각을 부여하며 색다른 멋을 주며 지퍼 디테일을 통해 스포츠웨어에 기능성

을 부각시키며 단조로운 옷에 포인트 역할을 하고 있다<그림 20>. 대다수의 제품에는 3M 반사테이프(scotchlite reflective tape) 부자재를 활용하여 우천 시와 야간 활동의 안정성을 극대화하였고, 디자인 포인트로 절개부분에 트리밍하거나 로고에 적용하였다. 최근에는, 방수기능의 지퍼까지 등장하여 단순한 디자인 측면이 아닌 기능적인 면을 고려한 다양한 지퍼 디테일이 선보이고 있었다.⁵²⁾

티셔츠는 등산 시 땀에 젖기 쉽고 쉬는 동안에는 금세 추워지기 때문에 산행 시 땀을 빠르고 쉽게 배출할 뿐만 아니라 탈취기능이 부여된 흡습속건성, 쾌적한 착용감이 중요하다. 따라서 대부분 등산용 티셔츠의 형태는 라운드 넥라인에 차이나칼라, 라글란 슬리브의 형태로 앞여밈은 빠르고 쉽게 오픈할 수 있도록 지퍼로 마무리한 집티(zip-t)디자인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림 21>과 <그림 22>는 각각 케이투와 라푸마의 티셔츠로 소매형태는 라글란 슬리브의 형태로 역동적이고 활동적인 이미지를 옐로우와 블랙, 화이트와 네이비로 채도와 명도의 차이를 두어 각각의 색상이 돋보이게 하였고 앞여밈으로 사용된 지퍼역시 밝은 색상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캐주얼화가 티셔츠 칼라에도 적용되어 폴로 칼라의 티셔츠 형태도 볼 수 있었다. 4계절이 어느 정도 뚜렷한 국내 기후에 맞춰 바지 길이도 쇼트, 무릎, 발목길이로 활동성과 수납을 위한 틱, 카고포켓 등의 기능성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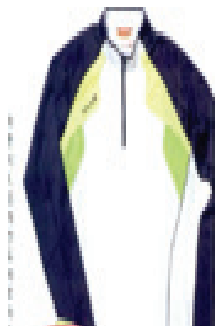
<그림 19>
코오롱스포츠 2011년 12월
(출처: <http://adic.co.kr>)



<그림 20>
노스페이스 2011년 12월
(출처: <http://adic.co.kr>)



<그림 21>
케이투 2011년 12월
(출처: <http://adic.co.kr>)



<그림 22>
라푸마 2011년 12월
(출처: <http://adic.co.kr>)



<그림 23>
라푸마 2011년 12월
(출처: <http://adic.co.kr>)

디테일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포켓 4개(앞에 둘, 뒤에 둘)의 발목길이 형태의 바지가 가장 많이 보였으며 기술의 발달로 스트레치 원단을 사용하였으므로 앞판 허리부분에 턱이 없는 것이 특징이었다<그림 23>.

3. 색상

일반적으로 화이트와 블랙을 기본색상으로 자연의 색상과 밝은 색상의 의류가 많이 보였다. 베이지와 그린계열, 레드계열이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어두운 색상보다는 밝은 색상의 화이트, 옐로우, 오렌지, 퍼플 색상이 눈에 띄었다. 절개를 통한 배색과 블랙에 오렌지, 그린의 배색 스티치, 퍼플 등 비비드한 색상의 배색스티치가 장식적으로 활용되었고, 의류, 신발, 장비 등 전 제품에 걸쳐 강렬하고 채도가 높은 색상이 나타나 젊고 역동적인 느낌을 전달하였다. 이는 2010년 이후 패션 색채 경향은 밝은 계열의 색상이 많이 등장한 것에 기인하며, 2012년 S/S시즌 아웃도어 트렌드에서 제시한 주요색으로 인공적 색상, 자연 색상(earthy tone), 다양한 핑크 계열의 색상은 아웃도어웨어 뿐만 아니라 액세서리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더욱 더 밝은 색상의 제품들이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웃도어웨어에 나타난 색채의 특징의 분포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3>. 2010년 이후 나타난 색채의 분포를 살펴보면 R계열이 40.4%, G계열이 28.8%, B계열이 11.5%, Y계열이 10.6%, 무채색 계열이 8.7% 순으로 나타나 R계열과 G계열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앞의 그림에서도 보이듯이 아웃도어웨어의 색상 경향은 어두운 색상보다 밝은 색상이 많이 사용되어졌고, 어두운 색상과 밝은 색상의 명도대비에는 주로 블랙을 기본으로 명도가 높은 Y계열, R계열, G계열을 면적의 변화를 주어 배색함으로써 어두운 색상은 더욱 어둡게, 밝은 색

상은 더욱 밝게 하는 효과를 보여주었다. 아웃도어웨어에 캐주얼 아이템이 거의 그대로 적용된 경우는 밝은 색상보다는 톤다운된 G계열과 무채색이 주로 쓰여 모던함을 느끼게 하였고, 아웃도어웨어에 나타난 전반적인 색채경향과는 차이를 보였다. 단, 수집된 104장 중 3rd layer의 착장과 배색한 그림의 경우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주조색을 중심으로 색채를 구분하였다.

<표 3> 아웃도어웨어의 색채

	무채색 (N)	Y계열	R계열	B계열	G계열	합계
수(개)	9	11	42	12	30	104
백분율 (%)	8.7	10.6	40.4	11.5	28.8	100.0

4. 소재

등산복에 사용되는 기능성 소재의 종류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종류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기술의 발달로 인한 스마트한 기능성은 소재부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주로 많이 사용되는 소재는 방수, 방풍이 잘 되는 고어텍스 제품이 가장 많으며 기능성 소재를 중심으로 고밀도 초경량 소재, 휴대성과 물기, 바람을 막아내는 방수, 방풍의 기능, 신축성과 보온성, 항공소재이다. 방수방풍 소재의 대표적인 소재는 고어텍스로 내구성을 증진시키며 동시에 수증기는 배출되고 빗방울은 침투하지 못하게 한다. 폴리우레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스판덱스와 사방향 스트레치성과 복원력을 지닌 미국 Malden-Polartec의 Power Stretch는 바지와 티셔츠에 가장 많이 사용된다. 보온성 소재의 대표적인 소재는 다운인데 최근에는 무게를 줄여서 향상된 성능과 편안함을 주는 방한용 충전재로 이용되며 과거 부피가 크고 무거워 특히 여성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지만, 최근 2~3년 화두가 된 경량화가 올해는 더욱 대중화되

어 초경량 소재와 공법을 사용해 무게와 부피를 줄여 제품의 무게가 평균 180~300g으로 아주 가벼우며, 캐주얼웨어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패턴류를 가미하여 스트리트 패션의 느낌을 더해주었다. 가벼워진 구스다운 점퍼는 보온충전재로 히팅 시스템은 물론 보호 기능도 보완하였고 기존 구스다운 재킷의 틀을 깬 판초와 케이프 스타일<그림 24>, 스커트, 바지등도 새로이 등장하여 방한성이 뛰어난 아이템과 레이어드하여 연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티셔츠와 바지, 재킷을 다 입어도 345g의 가벼운 경량감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광고 <그림 25>는 아웃도어웨어의 활동성과 기능성을 위해 소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6>은 컬럼비아의 옴니히트 재킷으로 안감의 은색점이 열을 반사해 극한 추위에서도 따뜻함을 유지하여 따뜻함을 유지시키고 걸감은 초경량의 아웃드라이를 적용해 방수는 물론 투습기능도 제공한다. 캐주얼 아이템의 디자인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이질적인 소재의 혼용, 더욱 슬림해지고 다양한 패턴류(레오파드, 체크, 노르딕, 플라워 패턴 등)가 트렌드에 맞춰 도시적 모던함을 느끼게 하였다<그림 27>. 플리스(fleece)를 활용한 하이넥 베스트도 체크, 노르딕 패턴 등 절개와 배색을 통한 스타일도 보였으며, 해가 거듭할수록 젊은 층에게 많은 관심을 받으며 다양한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아

아웃도어웨어의 기능성에 바탕을 둔 실용성과 타운웨어로 착용하기에도 손색이 없을 만큼 트렌디함을 겸비한 다양한 제품들이 등장하고 있다. 구김이 가지 않고 오염에 강해 세탁 후에도 형태 안정성이 우수한 사방향 스트레치 소재가 많이 사용되어 실용성을 더했으며, 체온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보온성 소재로는 미국의 말덴 밀스(Maldem Mill)사 제품인 폴라플리스(polar fleece) 및 폴라텍(polartec), 금오텍스의 써모라이트(thermolite), 방풍과 보온 효과의 윈드스토퍼(wind-stopper), 윈드블록(windbloc)등을 사용하였다. 이 외에도 면과 모 등 이질적인 느낌의 재질을 합성하여 방풍, 방수, 통기성을 갖춘 니트나 우븐 소재의 아웃도어 캐주얼 제품은 전형적인 등산복의 느낌을 탈피하여 무채색 계열의 그레이와 블랙, 자연색상의 베이지와 카키 등이 주로 사용되어 모던함을 느끼게 하였다. 등산은 하체 움직임이 많은 만큼 경량감과 활동성을 고려하여 스트레치 원단을 사용하며 자외선 차단이나 보온, 방풍, 투습 기능이 강화된 고품질의 등산 바지가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⁵³⁾

기능성 소재에도 도심형 캐주얼의 영향을 받아 기능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데님스타일의 바지를 선보여 기존의 등산복 바지의 개념의 틀을 깬 새로운 느낌을 전달하였다. <그림 28>은 코오롱스포츠의 2011년 F/W시즌 제품으로 데님 스타일 팬츠에 오리털 파카를 착용하여 평상시에도 입을 수



<그림 24> 노스페이스 판초패딩 2011년 F/W시즌 (출처: <http://adic.co.kr>)



<그림 25> 코오롱스포츠 2010년 4월 (출처: <http://adic.co.kr>)



<그림 26> 컬럼비아 옴니히트 재킷 2011년 F/W시즌 (출처: <http://adic.co.kr>)



<그림 27> 케이투 2011년 12월 (출처: <http://adic.co.kr>)



<그림 28> 코오롱스포츠 2011년 12월 (출처: <http://adic.co.kr>)

있는 룩을 보여주었다.

IV. 결 론

현대사회에서 아웃도어 활동은 건강한 삶을 제 공해줄 뿐만 아니라 삶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기존 아웃도어 브랜드를 포함하여 신 규 브랜드 런칭도 아웃도어 시장에 초점을 맞추며 시장 영역을 점점 넓혀가고 있다. 이렇듯 아웃도 어웨어가 보편되고, 캐주얼웨어의 경계가 모호해 지면서 아웃도어웨어와 캐주얼웨어와의 혼합된 스타일이 나타났다. 21세기 패션에서 특정 스타일에 대한 고수는 점차적으로 무의미해지는 경향을 보 이며 전통적인 착장분류인 형식과 상황에 따른 의 복연출에서 개인 표현적이며 환경에 따른 합리주 의적 의복연출로 변화되었다.

최근 아웃도어웨어의 디자인 특징을 조형요소 인 실루엣, 디테일, 색상, 소재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편안한 신체의 활동성을 위해 입체 패턴을 이용하여 인체의 곡선 흐름을 강조한 좀 더 슬림 해진 형태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프린세스 라인, 닛트 등을 넣어 몸에 잘 맞는 형태의 아이템이 상 의와 하의, 모두에서 보여졌으며 과거 박스형태의 남성적인 실루엣에서 몸의 형태를 부각시키는 여 성적인 실루엣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또한, 활동성 과 기능성을 위한 지퍼, 스트링, 밴드, 장식 스티치 등의 디테일은 배색처리를 함으로써 아웃도어 의 류에 디자인 포인트로 많이 활용되었다. 앞서 언 급한 슬림한 실루엣과 기능적 디테일은 무채색과 강렬하고 채도가 높은 색상계열의 색상 대비를 통 해 활동적이고 젊은 느낌을 전달하였고, 의류뿐만 아니라 액세서리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더욱 더 밝은 색상의 제품들이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 슬림해지고 가벼워진 초경량 소재는 타운웨 어로 착용 가능한 캐주얼웨어와 절충되어 아웃도

어웨어의 틀을 깬 판초(poncho)와 케이프 스타일 (cape style) , 스커트등도 새로이 등장하여 방한성 이 뛰어난 아이템과 레이어드하여 연출 할 수 있 도록 하였고 다양한 패턴류도 트렌드에 맞춰 선보 였다. 방풍, 방수, 통기성을 갖춘 니트나 우븐 소재 의 아웃도어 캐주얼 제품은 전형적인 등산복의 느 낌을 탈피하여 무채색 계열의 그레이와 블랙, 자 연색상의 베이지와 카키 등이 주로 사용되어 도시 적 모던함을 느끼게 하였다.

위와 같은 분석결과는 아웃도어웨어가 일상생 활과 레저 등 다방면으로 쓰임새가 넓어져 소비자 층이 확대되면서 젊은 층을 위한 세련되고 다양한 디자인의 제품을 각 기업에서 선보이고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아웃도어웨어의 건강함과 역동성, 젊 음, 기능성 등이 패션 트렌드와 접목되면서 브랜 드들은 젊은 층에게 인지도가 높은 스타들을 모델 로 기용하면서 중장년층에 이어 10~20대 시장까지 공략하였고, 아웃도어 시장은 라이프스타일 트렌 드 확산에 맞춰 도시형 아웃도어 스타일로 파고들 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상품 구매 시 다기능 (multi-functions)에 대한 요구를 강하고 나타내고 있어 아웃도어 시장도 상품본연의 기능적 측면뿐 만 아니라 디자인 측면까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도심형 캐주얼 제품들이 앞으로 더 많이 개발되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웃도어웨어의 다기능성에 따른 제품의 확대는 패션의 지속가능성, 친환경을 실천하는 사회·시대적 요구로 웰빙 트렌드와 부 합하여 기능성과 패션을 접목한 21세기 패션의 새 로운 스타일로 발전해나갈 것이며, 또한, 현대인의 건강과 레저에 대한 관심증가로 레저참여활동이 점점 더 늘어갈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아웃도어웨 어는 다양한 카테고리과 함께 지속적인 기능적 소 재개발 뿐만 아니라 소비자 층 확대에 따른 디자 인 연구개발에 더 힘써야 할 것이며 앞으로 더 다 양하고 이질적인 요소 및 경향들과 결합하여 새로 운 트렌드로 나타날 것이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 1) 삼성디자인넷(검색어: 아웃도어), 자료검색일 2011. 12. 3. <http://www.saumsungdesign.net>
- 2) ‘친환경’, ‘가벼움을 들 수 있다’, ‘신경 써라, 산에도 시선이 있다’ 등의 광고문구는 본 연구에서 선정할 상위매출 5개 브랜드의 광고에서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보이는 헤드카피이다.
- 3) 김미영, 한명숙 (2003). 국내 패션에 나타난 스포티즘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1(5), pp.778-792.
- 4) 정재희 (1991). 20세기 여성 스포츠웨어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1-91.
- 5) 하승연, 이연희, 박재옥 (2006). 21세기 이후 스포츠웨어의 미적 특성: New York Collection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30(6), pp.880-891.
- 6) 박주희 (2004). 하이브리드에 의한 패션의 스포티즘 연구, 복식문화연구, 12(5), pp.792-804.
- 7) 하지수 (2002). 미국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기능주의, 한국의류학회지, 26(10), pp.1455-1466.
- 8) 오희선 (2011). 아웃도어웨어 시장분석 연구, 한국일류학회지, 14(3), p.102.
- 9) Marilyn J. Horn and M. Gurel (1992). The Second Skin(3rd ed). Boston: Houghton Mifflin Co, p.113.
- 10) 하지수 (2000).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스포츠 룩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 50(2), p.17.
- 11) 엄준희 (2003). 1990년대 이후 액티브 스포츠웨어의 트렌드 분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0.
- 12) 김경영 (1995). 국내 Sports Brand의 상품기획에 관한 연구: 국내 수입 브랜드 상품기획 현황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
- 13) 정정미 (1996). 하이패션에 나타난 스포츠 스타일에 관한연구: 1990년대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7.
- 14) 박우미, 박춘덕, 이귀례, 나정은 (2002). 운동기능성과 심미성을 고려한 아웃도어웨어의 디자인개발연구, 복식, 52(8), p.31.
- 15) 김찬주, 노미경 (2009). 아웃도어 라이프 활성화를 위한 페이스 커버 개발 연구, 복식, 59(1), p.48.
- 16) 한동철 (2002). 등산의 세계, 서울: 조선일보사, p.784.
- 17) 최진영 (2009). 아웃도어 여성용 다운재킷 패턴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p.6.
- 18) 위의 논문, p.10.
- 19) 최혜선 (2011). 액티브 스포츠웨어 설계, 서울: 수화사, p.55.
- 20) 이은혜 (2010). 20~30대 여성을 위한 타운웨어 겸용 등산복 개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30.
- 21) 한동철. 앞의 책, p.785.
- 22) 김용국, 최경범, 임윤학, 이경근 (2006). 스포츠와 웰빙 여가론, 서울: 한울출판사, p.64.
- 23) 성희원, 전양진, 박혜선 (2005). 자외선 차단 의복에 대한 소비자 조사: 아웃도어 스포츠웨어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9(8), p.1137.
- 24) 최혜선. 앞의 책, p.36.
- 25) 1947년 7월 12일부터 25일까지 14일간 국토구명사업으로 실시된 소백산백학술조사대 참가대원들의 사진으로 소백산 연화봉에서 찍은 것이다. (출처: 한국산악회 (1995). p.25.)
- 26) 한국아이닷컴(검색어: 1970년대 등산복), 자료검색일 2012. 2. 6. <http://news.hankooki.com>
- 27) 군수품 합동단속 (1980. 9. 8). 동아일보, p.7.
- 28) 네이버 백과사전(검색어: 등산의 역사), 등산의 역사, 자료검색일 2012. 2. 3. <http://100.naver.com>
- 29) 황경숙 (2010). 영미 골프의 문화적 진화, 경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24.
- 30) 김문겸 (1996). 현대사회와 여가, 부산: 부산대학교출판부, p.221.
- 31) 정명희 (1991). 레저스포츠로서의 등산복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p.7.
- 32) 고급화의 물결 의류 (1968. 4. 6). 매일경제, p.2.
- 33) 고어텍스(Gore-tex)는 세계 최초로 상품화된 투습성 방수소재로서 미국의 W.L.Gore & Associates Inc.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이를 기점으로 야외용 스포츠 의류소재에 인체생리학을 적용시키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최혜선. 앞의 책, p.41.)
- 34) 다운(Down)이란 수조류의 깃털에서 주어진 이름으로 오리나 거위의 가슴털로 약 1세기 전 미국, 중국, 대만, 헝가리, 프랑스 등지의 대단위 식품제조과정의 부산물로 고기는 식용으로, 깃털은 가구용, 다운은 침구용 및 방한용 의류 충전재로 사용되었고 점차 겨울용 의류에서 다운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 35) 첫 레저 패손쇼 (1972. 11. 20). 동아일보, p.5.
- 36) 스포츠의류 고급화경쟁 (1982. 1. 22). 매일경제, p.7.
- 37) 계절상품 등산용품 (1984. 3. 23). 매일경제, p.10.
- 38) 박용준 (2011). 소비자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등산복의 활용성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1.
- 39) 삼성디자인넷(검색어: 아웃도어), 자료검색일 2011. 12. 3. <http://www.saumsungdesign.net>
- 40) 머니투데이(검색어: 아웃도어), 자료검색일 2012. 1. 23. <http://stylem.met.co.kr>
- 41) 한국 시장은 비좁다, 기술개발로 글로벌 브랜드와 한판 승부 (2011. 5 .25). 중앙일보, p.3.
- 42) 오희선. 앞의 논문, p.101.
- 43) 유통별 결산 (2008. 12). 패션채널, pp.98-100.
- 44) 아웃도어 더 컬러풀해진다 (2009. 3). 어패럴뉴스, p.8.
- 45) 윤지영 (2011). 아우트로 패션의 소프트 구조주의적 조형성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2.
- 46) 윤지영, 앞의 논문, p.43.
- 47) 박경연, 유태순 (2000). 스포츠 캐주얼웨어 소비자의

- 패션라이프스타일과 정보원과의 관계, 복식, 50(4), p.106.
- 48) 김민자 (2008). 복식미학 강의 2, 서울: 교문사, p.254.
- 49) 박우미, 박춘덕, 이귀례, 나정은 (2002). 운동성과 심미성을 고려한 아웃도어웨어의 디자인개발연구, 의류학회, 52(8), p.29-39.
- 50) 최진영 (2009). 앞의 논문, p.14.
- 51) 모선테크 신기술은 연세대학교와 공동연구로 탄생한 것으로 입체분석한 설계와 부위별 스트레치 소재적용으로 아웃도어 최적의 활동성을 제공한다.
- 52) 삼성디자인넷(검색어: 아웃도어 트렌드), 자료검색일 2012. 2. 3. <http://www.saamsungdesign.net>
- 53) 시티신문(검색어: 등산바지), 자료검색일 2012. 2. 14. <http://clubcity.kr/news>

A Study on Design Characteristics in Outdoor Wear

Kim, Ine⁺ · Ha, Ji Soo

Doctoral course, Dept. of Clothing &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Sports has affected fashion over the years and sportswear has become a new fashion category today. Outdoor wear is now more fashionable as consumers are increasingly developing an interest in healthy lifestyles and leisure activities are affecting fashion. Therefore, this article observes the history of outdoor wear to analyze design characteristics of domestic outdoor wear. The results show that outdoor wear has advanced in accordance with development of functional details such as various zippers with welding, strings and bands, and very lightweight fabrics with slim silhouettes. Colors are brighter than ever with vivid color contrasts or various patterns. These characteristics are expressed as ergonomic designs using new technology textiles and complex. According to generalization of leisure activities, fashion has evolved to a combination of casual and outdoor wear, called outo fashion. Design characteristics of outdoor wear include designs similar to casual wear items or usage of different materials such as those used for casual wear. These changes should facilitate innovational developments.

Kew words: outdoor wear, mountain-climbing clothes, design characteristics

